요우커 급증… 무안공항 출입국관리소 시급

올 입출입국 12만명… 광주서 출장 심사

전남도 건의에 안행부 시기 저울질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가 법무부와 협의한 뒤 비슷한 여건의 청주·양양공항 등을 포함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일단 설치 가능성은 높아졌다.

전남도는 23일 "최근 안전행정부에 무안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를 건의했고, 안행부에서도 공감을 표해 법무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청주·양양공항 등과 함께 출장소 설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안공항에는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6명이 출장을 와 출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

무안공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 입국과 출국심사 때 각 3명, 입·출국 동시심사 때 6명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장 업무'를 보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오다 보니 비행기 출발 도착 시간 변경 등 돌발상황이 벌어지면 출입국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해 출입국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안행부에 올해 내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을 통한 입출국자는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11만789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773명에 비해 7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3일 오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에서 열린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최형식 담양군수, 문경규 전 담양군수, 정욱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 차상준 담양개발(주) 대표, 지역주민 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담양일반산단 기공식

담양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23일 오후 담양읍 삼만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최형식 담양군수, 도의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담양산단은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으로,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 국도24호선 등 접근성이 양호한 지리적 요충지에 들어섰다.

현재 보상 80%, 공사 진도 10%로 연내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준공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분양도 하기 전 담양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입주 희망기업 5개사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주)대신테크, 하남전기(주), 뉴모텍(주), (주)시온테크닉스 4개사는 자동차 부품, 전기모터, 정밀기계 등 첨단 부품을 제조한다. (주)목림은 사무가구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5개사 총 투자금액은 250억원, 고용 인원 24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담양산단은 2015년까지 민자 538억원을 투입해 58만1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담양그린개발(주)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완도전복특구' 우수 지역특구 대상

중기청 15곳…강진청자특구 장려상

화순백신·남구교육·보성녹차 표창

중소기업청이 완도전복산업특구를 '우수지역특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2억원의 지원금을 시상한다.

전국 15곳의 우수지역특구 가운데 광주·전남에선 5곳이 선정돼 지역이 특구사업 성과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4일 강원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201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을 열고, 완도전복산업특구를 포함한 15곳을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시상한다.

대상을 수상하는 완도전복산업특구는 전국 전복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국내최대 생산지로, 특구사업을 통해 2062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특구 입주기업 매출액 636억원, 전복수출량 713t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 외에도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가 장려상에 선정돼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화순백신산업특구와 광주 남구교육문화특구, 보성녹차산업특구가 청장표창을 수상한다.

전국 지역특구는 지난해 기준 155개가 운영중이며 입주기업 매출과 관광 수입 등으로 연간 10조263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닭·오리 사육농 행사·축제 참석 자제해 달라"

전남도, AI 방지 '고육책'

조류인플루엔자(AI)가 시기와 상관 없이 계속되는데다 겨울 철새 도래, 각종 지역축제에 의한 외부인 유입 등에 비상이 걸린 전남도가 급기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규모 행사, 지역축제, 관광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AI 추가 발생을 막아보자는 절박한 '고육책'인 셈이다.

전남도는 23일 "10~11월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농업박람회, 전국체전, 국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몰려있고 가을 단풍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부터 상당수 야생철새가 겨울철 월동을 위해 시화호, 천수만 등 국내 주요 도래지에 도착한 것도 방역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AI는 계절에 상관 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AI는 총 61건으로 119농가의 닭·오리 271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월별로는 1월 3건, 2월 13건, 3월 19건, 4월 2건, 5월 3건, 6월 3건, 7월 3건, 9월 6건, 10월 9건 등 8월을 제외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육농가에 소독 강화, 야생철새와 접촉 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임상예찰 강화 등을 주문하고, 지난달 29일 전통시장에서의 닭·오리 판매 전면 금지에 나선 바 있다.

또 그동안 수차례 건의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AI에 취약한 오리부터 예방접종 실시와 국립 AI연구센터 건립, 발생 위험시기(10~5월) 사육 제한 및 농가에 최저 생계안정자금 지원,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는 일반인은 철새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 세척·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 사육농가 등 가금 관련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여수 등 송전탑 반대 주민들 헌법소원 낸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위헌 주장

전국에 흩어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송전탑 피해 주민 법률지원단은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경남 밀양, 경북 청도, 충남 당진·서산, 전남 여수 등 각 지역 대표 주민 5명이 두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헌법소원 준비에는 법률지원단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등이 돕는다.

법률지원단은 재산적 보상지역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등을 규정한 송주법 2조 2·3·4호, 4조 3항, 5조 4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법률지원단은 실제 주민들 피해에 적절하지 않은 송주법 보상 규정으로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송전탑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매설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경과지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문상필·전진숙 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북구의원 이관식 최우수, 최기영 우수상

광주시의회는 문상필(새정치·북구 3)·전진숙(새정치·북구 4)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역의원 중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된 문상필, 전진숙 의원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실천 과정이 더욱 중요한 만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선거 매니페스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광주 북구의회 이관식 의원이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을,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상필 시의원

전진숙 시의원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 과정에서 우수 공약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의 공약집, 선거공보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 했으며, 광역의원 26명과 기초의원 13명 등 총 39명을 수상자로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